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한 만 길*

◁ 목 次 ▷

I. 문제제기	문제분석
II.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 분석모형	IV.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재사회화 방안
III.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	V. 결 론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탈북 이주자(약칭 탈북자)¹⁾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체제의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종래의 '귀순자'라는 용어를 '탈북 이주자'로 사용한다. '귀순자'는 북한에 대하여 저항하고 남한에 순종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고정된 시각으로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 '탈북 이주자'는 이들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본다.

붕괴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대량 난민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사회적응 문제를 예측해 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며,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전망해 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4일 탈북자 김형덕씨가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현재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는 탈북한 이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한 채 신문배달을 하거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에 오면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고, 물질적인 보상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막상 남한 생활을 통하여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95년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561명으로 알려져 있다.²⁾ 이들의 직업 실태는 공무원 19명, 국영기업 13명, 은행 24명, 의사 4명, 군인 1명, 회사원 203명, 상업 44명으로서 전체의 절반 정도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3명은 막노동을 하거나 무직으로서, 이들은 월평균 수입이 40~80만원으로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안락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실망과 좌절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이며, 민족적인 문제이다. 탈북 이주자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전망해 볼 때 탈북자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탈북 이주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모형을 설정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부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재사회화

2)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토론회,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6.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 분석모형

1.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의 의미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는 이론적으로 사회심리학, 정치사회학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심리학은 개인의 사회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며, 정치사회학은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에 적응해 나가는 재사회화의 과정을 논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응의 과정을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사회적응을 개인 심리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자아개념, 동기, 태도, 갈등, 정서, 불안 등의 요인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사회문화적 적응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개인심리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으로 사회체제와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중시하게 된다. 사회문화적인 과정은 개인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가치, 문화양식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는 정치경제적인 태도, 문화양식, 인간관계, 가정생활, 직업생활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³⁾

3) Stephen Worchel & George R. Goethals, *Adjustment : Pathway to Personal Growth* (N.Y. : Prentice Hall Inc., 1985).

이러한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탈북 이주자의 적응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 과정과 사회문화적인 적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남한사회에서 탈북 이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아개념의 수준이나 각종 심리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과 심도, 정서 상태, 그리고 불안의 내용, 원인, 정도 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그들이 갖는 정치경제적인 태도, 그들의 문화양식, 인간관계, 직업생활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탈북 이주자의 남한 사회적응 문제를 정치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미 아동 초기의 사회화를 경험한 바 있는 성인들이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재사회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적응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사회화는 대단히 유용한 개념이다.

정치사회화의 관점으로 볼 때 사회화는 청소년기에 기본적인 신념, 태도, 가치관이 형성되지만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⁴⁾ 말하자면 성인기에 도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학습과 발달을 통하여 사회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에게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

재사회화는 성인기에 이르러 사회적인 변화를 계기로 하여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화가 성인의 성장 발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재사회화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발생하는 계기를 살펴 보면 인권운동,

4) Roberta S. Sigel, *Political Learning in Adulthoo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 24.

여성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발생, 또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민과 같은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운동, 여성운동, 또는 이민으로 인하여 재사회화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흑인의 재사회화 과정을 보면 특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운동이나 흑인 폭동과 같은 사회적인 사건이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 매체, 문화행사도 흑인들에게는 재사회화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즉 흑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흑인 거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 등도 흑인들에게는 자신의 새로운 의식을 각성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⁵⁾

이민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혼란, 국가간의 갈등, 경제적인 빈곤이라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민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분석이다. 거시적인 분석은 경제적 노동력의 이동이나 체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분석은 이민자의 문화적인 적응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경향이다. 전자는 구조적 적응을 의미하며 후자는 문화적 적응을 의미한다.

고든(Gordon)⁶⁾은 일찍이 사회적응을 문화적 동화와 구조적 동화로 구분하였다. 문화적 동화는 주류사회의 문화에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동화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말하며, 구조적 동화는 주류사회의 사회조직이나 구조에 1차적 집단과 같은 수준으로 완전히 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적 동화와 달리 구조적 동화는 기존 사회의 지배집단이 이민집단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든은 문화적 동화와 구조적 동화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여 이민자의

5) Aldon D. Morris, Shirley J. Hatchett and Ronald E. Brown,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Black Political Socialization," in R. S. Sigel ed. *Political Learning in Adulthood*.

6) M.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71.

적응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응(accl-
turation)의 과정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접촉하여 문화적 규범에 적응하는
단계이다. 둘째,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 과정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경제, 제도적인 구조를 수용하는 단계이다. 셋째, 병합(amalgama-
tion)의 과정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통합되는 과정이다. 넷
째, 동일시(identificational assimilation)의 과정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정
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attitudinal
assimilation) 과정으로서 기존 시민의 태도, 신념, 가치관과 일치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동화(behavioral assimilation) 과정으로서
기존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합치하는 단계이다.

한편 호스킨(M. Hoskin)⁷⁾은 아동의 사회화와는 다르게 성인 이민자의
사회화 논의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치적 사회화
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성인의 정치적 사회화를
탈사회화와 재사회화로 규정하면서 정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들의 개인적 동기와 특성을 파악하는 일
이 중요하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능력, 문화적인 수용 능력
을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이민 정책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요
구와 정책, 이민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
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민자들의 집단적인 행동, 정치적인 태도, 정치적
인 행동을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사회화는 성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다. 특히 성인들은 자신이 살아 왔던 사회와는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규
범과 가치관을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재사회화라는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탈북 이주자들이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남한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사회적응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시사점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민자의 적응 문

7) Marilyn Hoskin, "Socialization and Antisocialization : The Case of Immigrants,"
in R. S. Sigel ed. *Political Learning in Adulthood*.

제는 개인심리적 접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중시해야 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의 과정은 초기에는 제도, 법규, 직업기능과 같은 비교적 외형적이며 단순한 영역으로부터 시작하며, 규범, 가치관, 의식, 태도와 같은 내면적, 문화적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응의 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라 사회성원으로서는 원만히 적응하며 동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 조치가 필요하다.

2. 남한사회 적응 분석의 방법

여기에서는 그동안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 보고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인 적응, 사회구조적인 적응, 문화적인 적응, 직업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적응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전우택과 민성길⁸⁾은 심리적인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탈북자의 사회적응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외로움, 자아정체성, 죄책감, 직선적이며 경직된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적응 상의 문제로서 “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 그들이 겪는 외로움은 남한 주민과 인간적인 접촉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수용하기 힘들며,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열등감, 배타성, 경직된 사고에 연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혜정⁹⁾은 탈북자의 적응 실태를 사회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은 경제, 사회, 직장, 학교, 언어생활을 보았으며, 문화적 측면은 대인관계 및 가정과 종교생활을 보았다.

8) 전우택·민성길,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 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토론회 자료, 1996.

9) 오혜정,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특히 그는 북한의 집단주의 사회, 수직적이며 획일적인 사회생활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한 사회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남한의 문화 동화 과정에서 부적응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한편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도 기본적으로 심리적 적응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김동배¹⁰⁾는 탈북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단계를 심리적 갈등기, 직업훈련기, 사회적 적응기, 사회적 통합기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 단계에 기초하여 직업 및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호¹¹⁾는 탈북자(그는 남한 이주자로 명칭을 부여할 것을 제외)의 사회적응 과정을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응의 측면과 심리적응 측면으로 구분하여 두 측면에서 각각 5단계의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응 측면은 이질문화 충격 단계, 기초취업 준비 단계, 생활 정착 단계, 재사회화 단계, 문화사회적 통합 단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적응 측면은 방황기, 갈등기, 적응기, 동화기, 안정기로 설정하였다. 그는 탈북자의 사회적응 과정을 재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외에 탈북자의 지원대책에 관한 연구¹²⁾가 있는데, 주로 부처간 연계성,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취업, 사후관리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논외로 한다.

10)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토론회 자료,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6.

11) 이장호, “남한 이주자(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모임 발표자료, 1996.9.20.

12) 이종훈, “북한 탈출 동포의 보호문제,” 국회도서관 「현안분석」, 제80호, 1994.7;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7-1, 1996. 봄호; 이금순, 「북한 탈출 주민 대책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위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모형을 적응 영역과 적응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사회적응의 영역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의 4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4영역의 적응 분석을 각각 순적응과 부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이주자의 사회적응 분석을 위한 적응 영역 모형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
순 적응				
부 적응				
재사회화				

탈북자의 남한 사회적응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역별로 순적응 요인, 부적응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순적응과 부적응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영역별로 재사회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별로 재사회화의 요소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응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사회적응의 5단계 설정은 앞에서 분석한 미국의 이주민이나 탈북 이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적응, 제도적 적응, 문화적 적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적응 과정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응 과정과 재사회화 과정을 구분하였는데, 사회적응 과정은 탈북자의 적응 과정을 현상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계라고 보았으며, 재사회화 과정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사회화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단계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은 앞에서 언급한 이장호의 5단계 재사회화 과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변형하여 심리적응, 직업적응, 제

탈북 이주자의 사회적응 분석을 위한 적응 과정 모형

사회적응과정	재사회화과정
1) 심리적 불안정 시기	정서안정교육
2) 진로 모색 시기	진로직업교육
3) 제도 수용 시기	제도이해교육
4) 문화 수용 시기	문화수용교육
5) 사회적 동화 시기	민주시민교육

도적응, 문화적응의 과정을 재사회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탈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20명이며 대부분 1990년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면담을 실시한 대상은 20명이지만 필자가 근간에 북한 및 통일 교육 연구를 위하여 면담한 탈북자는 모두 42명에 이른다.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보아 온 탈북자들의 생활 실상이 이 논문을 구성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면담조사 방법은 우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하여 일반적인 적응 실태를 파악한 후에, 필요한 경우 2차 면담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개인적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면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차 면담에서는 개인적인 부적응 사례와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분석

여기에서는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각 생활 영역별

로 적응문제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1. 민주적 정치 생활의 적응 실태

정치생활 영역에서 탈북자들의 적응 문제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수동성,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다원적 민주정치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대체로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 있는 반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데 미숙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생계와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은 국가가 대신하여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유일체제에 의해 시키는 일만 해 왔기 때문에 자립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둘째, 탈북자들은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이 희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를 비도덕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중시되고 있는 국민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 참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구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병영국가와 같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권력층의 강압과 일상적인 감시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남한사회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탈북자의 말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책임전가가 되지만 남한은 되든 안되든 다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다.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하다.”

셋째, 탈북자들은 다원주의적인 민주정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집단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은 수령, 당, 대중의 단선적이고 위계적인 정치구조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응하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탈북자들은 남한의 민주사회가 다양하고 자유스럽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혼란스럽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점이 ‘모두가 자유롭다’는 점이다. 남한 국민들 모두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남을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탈북자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남한사회는 너무나도 자기 주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자기 몫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남한 정치는 뚝단배와 같이 바람부는 대로 간다. 한 마디로 아침에 시장에서 행상들이 떠드는 것과 같다.”

2. 시장 경제생활의 적응 실태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탈북자들은 계획경제체제에서의 수동성,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 인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능동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국가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로서 당연시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학교교육도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들은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적인 원칙과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응을 겪고 있다. 우선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돈의 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돈의 용도, 중요성, 절약의 태도와 같은 경제적인 태도가 미숙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가격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홍정'에 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두 써 버리고, 없을 때는 쪼들리면서 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주는 대로 가진 대로 써 버리는 습성에서 연유한다.

또한 탈북자들은 경제생활의 기본 상식과 원칙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건 구입의 방법, 부동산의 매매, 가옥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조건, 금융기관의 이용, 저축의 방법 등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다.

셋째,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기 전부터 이미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으며 자신들도 남한의 경제수준에 걸맞게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막상 남한 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힘든 노력과 기반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좌절감을 갖기도 한다. 또한 남한의 경제적인 격차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도 한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의 현실을 목격하고는 경제적인 풍요에 대하여 탄복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도 곧 바로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는 남한사회의 풍요로운 단면만을 목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즉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적 풍요라는 사실을 결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실제생활을 체험하면서 남한의 경제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하게 된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좌절

감도 맛보고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남한 사회는 이기적이며 냉혹한 시장경제라는 점이다.

한편 탈북자들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를 인정하면서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의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은 체험에 근거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열등시하고 멸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다는 데에서 우월감을 가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될 것이다.

3. 사회문화 생활에서의 적응 실태

탈북자들은 남한 생활에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 탈북자들은 집단주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남한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대하여 부적응을 겪고 있다. 우선 그들은 개인주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의식과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남한 사람들은 타인과 이웃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자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남한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특히 무슨 말을 하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이야기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한 사람들은 이웃간에 정과 의리가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하여 인정과 의리가 부족한 것 같다.”

둘째, 탈북자들은 심리적인 갈등과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생활의 안정에 대하여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친지와 이별하고 혼자 살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불안정과 소외감을 갖고 있다.

우선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생활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가운데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보

수가 적거나 직장 적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사상과 정치적인 통제로 인하여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복잡다양하고 많은 유혹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다. 정신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무엇이 있었으면 한다. 때로는 나약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한에 온 것에 대하여 회의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고생하실 부모형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결혼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나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나를 대할지 염려된다. 또 회사에 다니다가 적응을 잘못해서 쫓겨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나와 같은 탈북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염려된다.”

“낮에는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아파트 문을 들어서게 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독감이 뼈에 사무칠 듯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러한 고독감을 이겨 나가기 위해 종교에 심취하거나 재혼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 타락하는 사람도 있다.

셋째, 탈북자들은 남북한의 가정생활, 생활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남북한의 생활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부적응은 존재한다.

가정생활에서는 남녀의 역할, 여성의 지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스스로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가정을 충실히 돌보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그들이 남한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점은 가정을 지켜 나가는 데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시되고 있다는 점,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점, 자신들이 남한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원만하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부모의 가정교육이 지나치게 방임적이어서 자녀들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생활문화와 관습에서는 남북한이 큰 차이는 없지만 구체적인 생활방식에

서 탈북자들은 약간의 생소함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보다 북한에서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이 더 남아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언어, 역사인식, 정보습득 등의 측면에서 문화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거나 한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잘 모르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몰라 당황할 때가 있다. 또한 남한사회의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여 소화해 내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탈북자는 성문제, 대중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넷째, 교육문제로서는 교육관의 차이, 학교교육의 방법 차이, 친구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다는 사실에 대단히 부담스러워 한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자신이나 자식들이 남한사회의 경쟁적인 학교 풍토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성의가 부족하고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 신분인 탈북자는 본인들은 스스로 학교 적응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는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인 학생들은 학교 교과목 가운데 영어, 역사, 경제, 한문이 배우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각기 다른 생활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남한의 대학문화에서 대단히 생소한 면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차이가 클수록 적응상의 문제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직업생활의 적응 실태

직업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탈북자들은 직업의식, 직장 풍토에의 적응,

근무능력과 태도 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우선 직업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탈북자들은 국가가 직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도 북한에서 보다는 힘 안들고 편한 직장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자일수록, 고위직 출신일수록 심하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불만의 소지가 있다.

둘째, 실제로 탈북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직장에서 부과되는 업무가 북한보다는 과중하고 상하 위계가 명확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직장 내의 경쟁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의 직장 풍토에 비해서 남한이 더 과업에 대한 책무성이 강하며 주어진 업무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직장 풍토를 보면 북한보다는 훨씬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의 분담이 확실하다고 한다. 반면에 직장 내에서 경쟁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지위가 낮은 하급자나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는 괘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한 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친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맺어지는 소위 연줄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인연을 갖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한 탈북자는 “이 사회는 모든 면에서 그러하지만 회사에서도 혈연, 학연, 지연이 지배한다. 우리 회사는 그래도 안정된 직장인데도 그러한데 다른 직장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따지면서 살아 가야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라고 털어 놓는다.

셋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습득한 직업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뒤지고 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남한에서는 거의 쓸모없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나의 경우 북한에서는 전기공학을 전공하였다. 그런데 남한에서 60년대에 해당하는 기술 수준을 배웠으니 쓸모가 거의 없다. 기초적인 기술은 쓸모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지식과 기술은 남한의

20~30년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직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막노동,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직업과 근로에 대하여 대단히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력과 근면성은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기술 수준과 자본이 빈약한 상태에서도 육체적인 노동을 수단으로 하여 각종 대형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음을 보면 북한 주민의 악착같은 근로정신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베리아 벌목 현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영하 30~40도의 혹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북한 주민의 강인성을 짐작할 수 있다.

IV.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재사회화 방안

1. 재사회화의 방향과 과정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체계적인 재사회화 과정 즉 적응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의 재사회화 교육은 개인의 적응을 지원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통일 상황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민족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며,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고 이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민족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경직되고 대결적인 분위기에서 이들은 지극히 부분적이거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숱한 이질성을 인식시켜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동포라

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은 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 사례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데 있어서 시범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들 자신의 사회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김명세¹³⁾의 말대로 그들은 “북한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까지 받는 차별 대우로 말미암아 심한 좌절과 실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만약 통일 이후, 이(소외) 세력이 새로운 집단으로 형성되어 북한의 빈민들이 여기에 합세할 경우, 남북의 지역감정”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탈북자들의 적응 실태는 통일 이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북한 주민들의 적응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선 탈북자들의 가치관 혼란과 소외감에 따른 심리적 동요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재사회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만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적 동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의 재사회화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앞의 2장에서 제시한 5단계 재사회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절에서 생활영역별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내용의 요소를 제시하기로 한다.

재사회화의 과정에서 1단계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서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는 비록 짧은 기간에 해당할 것이지만 탈북자들

13)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토론회 자료, 1996.

이 가질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며, 남한 주민들이 그들을 음해할 것으로 스스로 예단하고 있는 그들의 공포심을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재사회화의 2단계는 직업준비 교육이다. 탈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직업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적응을 통하여 생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생활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기술의 습득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능과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직업적 태도의 형성, 직업정보의 수집과 판단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의 직업교육은 단순한 직업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직업의 선택, 진로의 판단, 적성과 능력의 개발을 포함하여 중시해야 한다.

재사회화의 3단계는 제도이해 교육이다. 여기에서 제도 이해는 민주사회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제도와 법규,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초적인 제도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법규와 운영, 기본 질서와 준수 사항 그리고 법제도 위반시의 처벌 사항 등 기본적인 제도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원리와 형성, 이익 추구의 규칙과 자유 경쟁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재사회화의 4단계는 문화수용 교육이다. 이 단계부터는 탈북자의 문화적응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한사회의 내면적인 가치와 규범, 질서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대중사회, 개인주의 가치관, 민주적인 사회규범에 대하여 미숙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관, 태도,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사회화의 5단계는 남한의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하는 과정이다.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동화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상인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으로는 사회성원으로

로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정상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는 시민으로서의 생활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한사회의 적응에 필요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 생활 영역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일정 기간동안 이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단독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단계적이면서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사회화의 교육내용

여기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의 구성요소를 제시해 본다. 교육내용은 앞의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4가지 생활영역별로 구성하였다.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의 영역별 교육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생활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적인 사회, 다양한 가치와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법질서와 규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의 원리와 시장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원만하게 적응하려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적인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 자유경쟁의 허용과 규칙의 준수, 생산과 소비, 화폐와 상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생활 측면에서 건전한

소비생활과 저축, 그리고 미래 생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이 제공되며, 그로 인하여 빈부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생활 영역에서는 민주사회의 개방적인 문화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면서도 통일사회의 문화적인 통합과 민족문화의 전통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통일문화와 민족문화를 함양하는 데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조직과 집단, 언론매체와 언론의 자유, 가족의 기능과 가정의 중요성, 대중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생활의 측면에서는 탈북자들이 자기 의사에 따른 직장선택을 통하여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직업기술 훈련과 직업적응에 필요한 진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에게 직업훈련과 진로교육을 통하여 취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일 것이다.

탈북자들에게 적절한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제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그들의 태도로 보면 직업에 대한 책무성, 일에 대한 근면성은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볼 때 기초적인 직업 능력은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초적인 직업능력에 부가하여 발전된 직업기술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이 생활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더욱 심각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통일이 남한의 민주사회 중심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통일후 현재의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생활에서의 부적응을 북한 주민들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통일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북한 주민의 부적응과 갈등은 전사회적이며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사태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지원책은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연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연습의 기회를 주고 있는 탈북자 사례는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의 기회를 적절하고도 충실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우리 민족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은 통합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규율에 대한 수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체제와 제도에 쉽게 동화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생활 면에서 북한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잠재력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육체노동에 단련되어 있으며, 정신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장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만 한다면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태도는 갖추고 있다.

사회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해 온 민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점차적으로 적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은 언어와 생활방식, 전통적인 관습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간에는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직업생활의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 노동력의 수준이 임금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점, 작업규율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직업생활의 적응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탈북자들도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통일의 과제일 것이다. 탈북자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북한 주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앞으로 통일의 기회를 민족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